

당내갈등 잠잠...文, '호남 민심잡기' 시동

내달 3일 광주, 4일 전주 이어 전남도 방문 계획

예산 정책협의 통해 내년 국고 확보 집중 지원

총선 겨냥 '反文정서' 완화·신당 바람 차단 주력 할듯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광주시와의 내년도 국고 예산협의를 위해 다음달 3일 광주를 방문할 예정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광주 민심 이반이 심각하다는 반문(반 문재인) 정서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광주 민심은 사실상 야권 신당 창당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일단 문 대표는 광주시와의 예산 정책 협의를 통해, 내년도 현안사업의 국고 예산 확보에 집중적인 지원을 약속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광주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

의 진정성을 강조하는 한편 광주를 중심으로 호남 민심 기저에 불고 있는 신당 바람 차단에도 나서겠다는 것이다.

또한, 강력한 공천 개혁을 통해 광주 민심의 혁신 요구에 부응하고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할 계획이다.

여기에 광주 정신으로 내부 갈등을 해소하고 야권의 위기 국면을 타개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광주 '반문 정서' 완화에도 주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주승용 의원의 최고위원직 복귀와 박지원 전 원내대표의 당직 수락 등을 토대로 당 대표를 넘어 대선 주자로서의 존재감 복원에 나서지 않느냐는 관측도 제

기되고 있다.

당내 관계자는 "호남 민심의 지지 없이는 새정치연합의 총선 승리는 물론 대선 주자로서의 미래도 없는 것 아니냐"며 "당장은 어렵겠지만 차근차근 호남 민심의 지지를 복원하는 것이 문 대표의 목표 일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3일 광주에 이어 4일에는 전주를 방문, 전북도와의 예산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전북 민심도 최근 귀향한 정동영 전 의장에 대한 동정론이 확산되는 등 신당 바람이 거센 상황이다.

전남도와의 예산 협의는 당초 광주시에 이어 진행하려 했으나 이낙연 전남지사의 순차적 협의 요청 등에 따라 다음 달 중순에나 이뤄질 예정이다. 이는 광주와 전주, 전북을 릴레이로 방문하면서 추석 호남 민심을 잡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근 신당 바람이 주춤하고 있는데다 새

정치연합의 내부 계파 갈등도 잦아드는 형국이며 지도부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그 래도 새정치연합'이라는 추석 민심 흐름 형성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당내 친노·주류 진영의 진정성 있는 헌신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한 번 돌아선 호남 민심을 잡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현재의 호남 민심은 문 대표의 방문과 장밋빛 지원 약속 정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문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당내 주류 세력의 희생과 헌신이 전제되지 않고는 백악이 무효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문 대표가 이번 광주 방문에서 기존의 총선 불출마 입장을 버리고 정권 창출을 위한 영남 민심 공략을 위해 부산 지역구 출마를 선언하는 등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정중섭 장관 새누리 연찬회 '총선 필승' 건배사

野 "선거법 위반...즉각 해임해야"

정중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난 25일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 참석, 만천하리에서 '총선 필승'이라는 건배사를 한 것으로 26일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 장관의 건배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새누리당은 건배사까지 당리당락 차원에서 해석하느냐며 반박했다.

새정치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 참석해서 총선필승이라는 건배사 외쳤다는 언론 보도에 충격 금할 수 없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담은 공직선거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정 장관의 해임을 요구했다.

유 대변인은 "행정자치부는 선거가 공정히 진행되도록 관리해야 할 주무부처"라며 "그런 점에서 가장 중립을 지켜야 할 장관이 '총선 필승'을 외친 것은 분분을 망각한 망발"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특정 정당을 지지한 것도 아니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덕담 수준의 건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엄밀하게는 새누리당이라는 구체적인 명칭도 쓰지 않았다. 건배사까지 당리당락과 정치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野 정체성 모호, 선거 승리 할 수 없다"

새정치 소장개혁파, 당 중도전략 실효성 놓고 열띤 토론

새정치민주연합 내 소장 개혁파 의원들의 모임인 '더좋은미래'가 26일 국회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당의 중도 전략의 실효성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산토끼는 없다?~집권을 위한 길 진보인가 중도인가' 주제의 토론회에서 김한태 매시컨설팅 대표는 "새정치연합은 양대 '집토끼'라고 할 수 있는 '수도권 진보'와 '호남권 진보' 모두를 결집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며 "현 상황에서의 중도 전략은 전략적 오류다. 중도적 인물만 대통령이 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 시점은 사회경제적 진보정책이 국민 절대 다수에게 지지를 받는 상황"이라며 "새누리당의 좌화좌는 올 바른 시대적 선택이지만 새정치연합의 우향우는 시대정신에 대한 오독"이라고 말했다.

김기식 의원도 "정체성이 모호한 정

당과 후보는 신뢰를 받을 수 없고, 신뢰 받지 못한 정당과 후보는 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다"며 "사회경제적 영역에서 진보 노선을, 외교·안보 영역에서 실용 노선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새정치연합의 위기는 당내 계파 갈등에 따른 지지층의 균열과 이반"이라며 "계파갈등의 극복을 넘어선 계파 청산, 과감한 기득권 혁파 등도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노선의 확립을 통한 신뢰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진복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야당은 진보경향 유권자를 전부 동원해도 필패 하기 때문에 중도 유권자에서 만회하든지, 보수 유권자 지지를 얻을 필요가 있다"며 "'안철수 현상'을 통해 중도층이 목소리를 낸 경험이 있다. 이에 주목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대통령 "안보위기 해소...이젠 경제활성화·개혁 매진"

새누리 국회의원 전원 초청 오찬회동

박근혜 대통령이 5년 임기의 반환점을 돌면서 여권 집집을 통한 국정 동력 확보에 나섰다.

박 대통령은 26일 청와대 영빈관으로 새누리당 국회의원 150여명을 전원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박 대통령이 여당 의원들을 모두 초청해 식사를 함께하는 것은 지난해 1월 7일 새누리당 의원 및 당협위원장 240여명과 만찬 회동을 한데 이어 이번이 취임 후 두 번째다.

당시 만찬은 집권 2년차를 맞아 국정철학을 재차 공유하고 박근혜정부의 성공을 위한 여권 의기투합 형식의 자리였는데 약 1년7개월 만에 이뤄지는 이번 오찬도 그때와 비슷한 성격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이날 오찬을 집권 3년차 하반기 국정 의제인 '최우선 과제'로 삼은 4대 부문 개혁과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입법과제 달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하는 기회로 삼았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이날 "이제는 경제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개혁에 매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많은 난관이 있었지만 우리가 한마음으로 노력한다면 반드시 해낼 수 있다고 저는 믿는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이어 "이제 노동개혁이라는 큰 과제가 여러분 앞에 놓여있다"며 "국가 경제와 미래세대들을 위해 이것이 꼭 해결될 수 있도록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앞장서주시기를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또 "이제 곧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이 되는데 4대 개혁 관련 법안과 산적한 민생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남북 고위급 접촉과 관련, "여러분도 그동안 긴장의 시간을 보내셨겠지만 어제 새벽 남북 고위급 접촉 타결로 북한의 도발로 시작된 국가안보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새누리당 국회의원 초청 오찬에 김무성 대표 등 지도부와 함께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원유철 원내대표, 박근혜 대통령, 김무성 대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이병기 비서실장. /연합뉴스

안철수 "3~5명 뽑는 중선거구제로 전환을"

선거구제 개편·오픈프라이머리 등 포괄 논의 제안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26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여야가 선거구제 개편,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 민경선제), 국회선진화법 개정 등 3대 쟁점을 협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포괄적으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안 전 대표는 현재 소선거구제를 1개 선거구에서 3~5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로 전환할 경우 여당이 요구해온 국회

선진화법 개정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현 소선거구제를 바꾸지 않는다면 의원 300명을 전원 바꾸더라도 똑같은 국회의 모습이 될 것"이라며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는 전제 하에서 중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APT 담보대출

상가·주택 담보대출

감정가대비 70%

+

회원전용신용대출

최대 5,000만원

까지

※ 신용상태등 당사가 정하고 있는 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산및공제 2,500억 조기달성 기원 행운 이벤트

대상

1. 자동차 3년 이상 신규 신청 고객 - 1장 (7년 이상 2장)
2. 전자금융 (인터넷, 텔레뱅킹) 신청 AND 체크카드 신규 발급고객 - 1장
3. 정기예탁금 신규 및 재예치 고객 - 1장(1천만원 이상)
4.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가입 고객 - 1장
5. 정기적금 신규 가입 고객 - 1장(1회 불입금 30만원 이상)
6. 신규 공제 가입 대상 고객 - (초회 공제 5만원 이하 -1장, 10만원 이하 -2장, 10만원 이상 -3장)
7. 카드결제 계좌 변경 - 2장 및 급여이체 변경 고객 - 1장

행사기간
2015. 04. 06 (월) ~ 2015. 11. 30. (월)

추첨일
2015. 12. 01(화) 본 금과 본점에서 추첨 - 당첨자 개별통보 및 공고문 게시(경쟁입회 후 추첨 예정)

경품안내

* 1등 - 순금 골드바(1명)	* 4등 - 족욕기(10명)
* 2등 - 의류 스타일러(1명)	* 5등 - 백화점 상품권(20명)
* 3등 - 아이패드(3명)	* 행운상 - 온누리 상품권(40명)

주의사항

1. 미성년자는 추첨대상에 제외.
2. 경품 중복 당첨 시 상위 상품에 대하여만 지급.
3. 추첨일 당일 행운권 교부 대상 조건 유지자에 한 하여 지급되며, 미 유지자 경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상기 이외는 실제 상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신만만자유예탁금 - 하루만 맡겨도 최대 1.7% 이율 적용

(금액 단계별 차등이율이 적용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빛고을새마을금고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5
(용봉동 주민센터 앞)

삼각점 062)525-2776~7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앞)